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농어촌 선교주일

오늘은 교단 농어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농어촌목회 현장에서 묵묵히 목회사역을 감당하시는 교단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여름사역을 위한 준비모임

오늘 점심식사 후, 오후 13:00부터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4. 경기서지방 여전도연합회 및 권사회 수련회

일시 : 2026년 6월 8일(월) 오전 10:30부터
장소 : 세한교회 비전센터 4층

5.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오전 10:20 ~ 오후 3:30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및 교육관

6. 구역예배

일시 : 2026년 6월 13일(토) 오전 10:30 (교회출발 9:00)
장소 : 임명자 집사
다음 : 이다남 집사

7. 2026년 6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4.16 ~ 5.16)

6.03(수)-한인혜 자매 6.04(목)-노승현 자매 6.10(수)-최서영 자매
6.11(목)-김승빈 어린이 6.13(토)-전서운 자매 6.14(일)-이다남 집사(-4.30)
6.17(수)-임명순 사모 6.24(수)-이종빈 형제 6.27(토)-이재우 어린이

< 애국과 평화의 달 >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6/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
01~05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호국기도회
06/03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6/06	산상기도회(전쟁기념관, 순교자배)
06/07	농어촌 선교주일 여름사역 위한 준비모임
06/08	지방회 여전도회권사회 수련회
06/09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06/14	환경주일
06/21	특수전도주일 한국전쟁 75주년 기념주일 교단 통일주일 - 천안교회(15시)
06/23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06/28	선교 헌신의 주일

주일 사랑 운행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정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정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령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06/07	임명숙 집사
06/14	김혜숙 권사
06/21	정현숙 권사
06/28	박제연 집사
07/05	이광근 안집사
07/12	임명자 집사
07/19	임명숙 집사
07/26	김혜숙 권사
08/02	정현숙 권사



주사랑 9권 23호 | 2026년 6월 7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06월 2026 애국과 평화의 달

- 01일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호국기도회(1-5일)
- 0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아하브코업 홈스쿨 가족 체육대회
- 06일 산상기도회 (전쟁기념관, 순교자배)
- 07일 농어촌선교주일
여름사역을 위한 준비모임
- 08일 경기서지방 여전도회 권사회 수련회
(세한교회, 오전 10:30~)
- 09일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 14일 환경주일
- 21일 특수전도주일
한국전쟁 75주년 기념주일
교단 통일주일 - 천안교회 (15시)
- 23일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 28일 선교헌신예배(마약퇴치의 날/8.28)

2026표어 :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 힘을 얻는 교회
[이사야 40:31]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농어촌 선교주일) 인도: 한승훈 담임목사

※ 목 도 호 2:21~23 인 도 자

※ 송영찬송 찬 9장 다 같 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육 No.79 요한복음 15장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393장 다 같 이
(오 신실하신 주)

대표기도 임명숙 집사
(중고등부 교육부장)

※ 성경봉독 사도행전 3:1~10(신 191) 임명숙 집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 담임 목사

봉헌찬송 찬 430장 다 같 이
(오 병이여 헌신 : 한희락 형제)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일에 직접 드립니다 / 입금: 2026.06.06. AM 6:00 기원)

십 일 조 : 장사라 한승훈임명순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 김옥화 한성결

주정현금 : 김혜숙 문제효 박제연 이광근 오동영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정현숙
한승훈 한희락 / 김옥화 김주형

감사헌금 : 김혜숙 이광근 박제연(자녀) 임명자(생일) 정현숙 한승훈 임명순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은총 한태민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한희락

전도헌금 : 장사라(이옥성 장세규 장세형 최란희 장은비 장연우 장지우)

건축헌금 : 김혜숙

선교후원 : 신정민 오복상 방애경 조형자 소망세광교회

성 미 : 김정미(10kg) 농협(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주 일 오 후 예 배

오후 1:3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25:14-30 (신 42)

말씀제목 달란트의 비유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 요 저녁예배

오후 7:30(조직신학).....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5:1-2 (신 245)

말씀제목 조직신학: 창이(이신창의)

목 요 구역예배

오후 1500 말 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23:1-20 (구 602)

대표기도 말 은 이

말씀제목 말씀이 주도하는 묘사의 개혁①

금 요 심야기도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호세아 6:1-6 (구 1261)

말씀제목 백성들의 불쌍한 회개

새벽 기도회(월~금)

새벽 530 사무엘상 묵상

7월월 마 25:14-30 달란트의 비유

8월월 삼상 12:1-5 사무엘의 마지막 염려

9월월 삼상 12:6-12 왕을 구하는 여리석음

10월월 삼상 12:13-18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다

11월월 삼상 12:19-25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

12월월 삼상 13:1-7 두려움의 영적인 이유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내선교(오주교총후스쿨)



해외선교(모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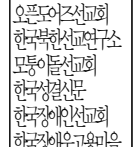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탈북민선교(평화나루교회)



기타 기관 선교



- ⑦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도 뛰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히 3:4~6)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
- ⑧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 무엇에 집중하라고 했나요? (히 3:12~14)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 ⑨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히 4:2~3)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 ⑩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강조했나요? (히 4:11~13)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과 ()과 및 ()과 ()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 ⑪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나요? (히 4:14~16)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이다 우리에게 있는 ()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작성하신 답안은 주보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를 해드립니다)

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히 1:1-3)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시요 그 ()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 ()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②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천사들 보다 뛰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증언하나요? (히 1:4-5)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을 기쁨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이 되리라 하셨느냐

③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증언하나요? (히 2:9-10)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④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로 거듭난다고 증언하나요?(히 2:11)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증언하나요? (히 2:14-15)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을 통하여 ()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⑥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로써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떤 점을 깊이 상고해야 한다고 했나요? (히 3: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이시며 ()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북아프리카 모리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5월에는 한국의 설날과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한 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가족 행사로 '에이드 크비르(=이드 알 아드하)'라 부릅니다. '에이드 크비르'가 다가올 때 타문화로써 피부로 가장 느껴지는 점은 '양을 희생의 제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임시 양 시장>이 열립니다. 마음에 드는 양을 고르고 명절 당일에 양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양을 끌고 옵니다. 저희 집 앞에서도 아침 7시부터 양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양을 끌고오고, 양을 잡고, 양의 가족을 벗기고, 간지로 설치해둔 도축장에서 부위별로 손질해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매년 에이드 때마다 수백만 마리의 양들이 희생됩니다. 올해 에이드 기간 동안 전국에서 소비된 양과 염소가 약 600~700만 마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희생제사는 알라에 대한 순종과 경건함, 가족과 친척, 친구들, 가난한 사람들과 희생된 고기를 나누는 자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명절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이들의 놀라운 문화로만 여겨졌는데, 양을 잡는 의미가 경건함과 종교적 나눔, 기쁨이 있음을 조금 더 알게 된 지금 '라마단 금식기간'과 같이 이런 문화가 곧 자신인 이들의 정체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들에게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생명의 기쁨과 보람을 나누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속에 때에 따른 순종의 방법들을 알려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들에게 정말 그 빛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딸 소리가 학교친구들과 최근에 부쩍 더 가까워졌습니다. 친밀해질수록 우리들과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학교에서 있던 이야기도 매일 해주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친구의 속사정을 알게된 것은 엄마가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배에 뒹가다 있어서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얼마 못 살 거라는 친구들의 잦은 말에 아이가 울었다는데, 이 가정의 아픔이 전해져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아들의 죄도 사해지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기를 위해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장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저 안타깝다하며 내 이야기같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매일 만나는 이웃들의 일이라 가슴 아프고 마음과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막연한 모로코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보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달 초에는 비자여행도 다녀왔었고, 모로코 남부지역으로 처음 가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남부지역에 다녀온 소식들은 다음편지에서 나누겠습니다. 다녀오면서 베르베르 민족을 향한 사역으로 오래 이 땅을 섬기시는 선생님을 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땅을 향한 마음을 풀어낼 자들을 찾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걸어오시는 선생님들 이야기에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북부로 비자여행 다녀오고(편도 7시간 거리), 남부지역도(편도 6시간 거리) 장거리 여정을 계속 다녀왔습니다. 그 외 일정도 많았던 터라 온 가족들이 병치레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소식에 이런 이야기를 적는 이유는 중요요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로코는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좋다고 하는 병원이 있더라도 병원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진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서 도움이 된 경우를 듣지 못해 스스로가 의사가 되어 판단해보고 여러 약과 항생제를 구비해두고 결정합니다. 함선 기사가 한국에서도 고열이 한 번씩 날 때 40도를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40도 넘는 고열로 아팠습니다. 에이드크비르와 기간도 겹쳤고, 해열제를 교차로 복용해도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변 선생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현재 열은 괜찮고 몸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701	산헤립에 의한 앗수르의 3차 침공	왕하 18:17-37
찬송가		찬 357장	다	같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왕하 19:1-37
대표기도		말	은	이	병든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하나님	왕하 20:1-11
성경봉독		왕하 23:1-20	윤	독	바벨론 사절단의 의도적 방문	왕하 20:12-21
말씀인도		말씀이 주도하는 요시아의 개혁	말	은	이	697 남유다 므세미의 등극
합심기도		다	같이	642	남유다 아몬의 등극	왕하 21:19-26
헌금기도		찬 411장	말	은	이	640 남유다 요시아의 등극
주기도문		다	같이	622	요시아의 개혁 운동	왕하 23:1-20

■ 들어가는 말

요시아가 남유다 왕국의 15대 왕위에 오른 뒤(BC 640~609), 언약책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후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의 명령을 따를 것을 함께 맹세합니다. 이후 언약백성으로서 여호와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땅을 정결케 합니다. 이 정결 작업은 남유다 왕국만이 아니라 이미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각 성읍에까지 이루어져 이스라엘에 영적 쇄신의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

보통 개혁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과 변화에는 유독 반발과 불편함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랜 관행과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과의 한비탕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정신과 맞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개혁을 끝까지 철저하게 예외 없이 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 주도의 개혁입니다(1~3).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된 요시아는 하나님과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이때는 요시아 제위 제18년(622년)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23). 요시아는 대대적인 개혁을 계획했고, 이에 앞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온 백성과 함께 언약식을 이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식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하여(출 24:1~7), 그 후손들이 갱신한 것입니다. 아사(대하 15:8~15), 요아스(왕하 11:17), 그리고 히스기야에 이어(대하 29:10~11) 네 번째 언약식입니다. 언약식에는 유다의 장로들, 각 지역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소집됩니다(2). 요시아 왕은 백성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제단 옆에 서서 성전에서 찾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낭독했습니다.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알려줌으로써 이제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언약식의 핵심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밝힙니다. 아사 왕의 때에 왕과 백성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한 것과 마찬가지로(대하 15:12~15),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3).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과 후, 요시아의 개혁의 의미는 사뭇 달라집니다. 개혁에 임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개혁의 동력도 달라집니다. 개혁의 주체도 달라집니다. 요시아가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개혁이 아니라 말씀이 주도하는 개혁이 될 때, 개혁하는 당사자마저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만이 성공합니다.

둘째, 어떤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개혁입니다(4~14).

말씀이 주도하는 개혁은 말씀이 요구하는 만큼 철저했고 포괄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으로 정화했지만(대하 29:1~30:14), 요시아는 유다 전역과 사마리아까지 대대적으로 정화합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첫 정결운동은 제위 12년(628년)에 있었습니다(대하 34:3~7). 이번 두 번째 정결운동은(622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 므낫세가 만든 산당들을 제거했고, 우상들과 제단들을 찢고 가루로 뿔었습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지역까지도 제단들과 우상들을 부숴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시 재건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며, 선대왕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산당들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고, 관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적발해야 하는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 습관, 그 욕망, 그 도모를 점검해야 합니다.

개혁은 요시아 왕의 주도하에 대체사장 힐기야와 부제사장들과 레위인 문지기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작업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했습니다(4~7). 먼저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의 우상과 모든 그릇을 꺼내 와 기드론 골짜기의 비탈 밭에서 불살랐습니다. 아사와 히스기야의 때도 이곳에서 우상을 불살랐습니다(왕상 15:13, 대하 29:16). 요시아는 남은 재는 모아서 뱀엘로 가져가도록 지시함으로써 예루살렘 주변에 남지 않게 했습니다. 또 성전에 세워둔 아세라 목상을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뿔다 평민 묘지에 뿌렸습니다. 이는 우상을 모독하고 우상의 무가치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백성들을 교화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남창들은 이방신 제의에 고용된 자들로서 르호보암 때도 있었습니다(왕상 14:24). 이곳은 여인들이 아세라의 휘장을 찢는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둔 성전을 버려야 했던 내막을 그대로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또 유대 왕들이 태양신 숭배를 위해 바친 말들과 수레들을 불살랐습니다. 아하스의 다락 지붕 위와 므낫세가 성전 뒤뜰에 세운 천체 숭배용 제단들도 가루로 뿔아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을 찢고 그 자리에 사람의 해골로 채워 더럽혔습니다.

셋째, 해묵은 죄악을 혁파하는 개혁입니다(15~20).

“유다의 여러 왕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선대의 왕들이 용납한 우상들은 백성들의 강력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들이라서 통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그런 악취나는 우상과 제단과 관습들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묵히고 쌓여서 친숙해진 문화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버린 죄악들이 깨어 있는 지도자에 의해 폭로되고 파괴되고 전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지 않으니, 솔로몬이 세웠던 반아들이고, 많은 왕들이 묵인했던 그 어떤 우상도 이제 섬겨야 할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완전히 철폐합니다. 말씀이 준 용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될 때, 예외 없이 끝까지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회복하는 개혁부터 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현주소를 깨달은 후 더욱 열심히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아무리 오래된 관습이든,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모두 사라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제거되기 전에 말입니다.